

尹, 추석 장바구니 물가 현장점검... “가격 안정되도록 노력”

명절 성수품 사과·배 등 가격 확인
“비축 물량 풀어 가격 내리고 있어”

농식품 장관에 배추공급 관리 당부
민생선물세트 판매상황도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마트를 방문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이 찾은 하나로마트는 농협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농축수산물 및 식품 유통 매장으로, 산지 생산조합에서 농축수산물을 직접 조달해 가격을 비교적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동점은 서울·경기북부하나로마트 매장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대통령실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이번 주는 유통업체가 추석 선물 세트 판매·할인 행사 등 판촉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시민들의 명절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추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며 굴비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및 성수품 구매도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기로 이에 맞춰 대통령도 현장을 찾은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이 마트에 도착하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직원들은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박수로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카트를 가지고와 시민들과 함께 장을 봤다.

우선 윤 대통령은 1층 과일 판매대에 둘러, 명절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직접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사

과 판매대에서 장을 보고 있던 시민들에게 “명절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는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서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사과 10개를 직접 골라 담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채소 판매대로 이동해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산지 도매본부장으로부터 배추, 마늘 등 농작물의 작황과 가격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들

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설명을 들으며 원산지 어디인지, 가격 할인이 어느 정도인지 묻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배추 두 포기를 안고 가는 시민에게 “배춧값이 좀 괜찮아졌나요?”라고 묻은 뒤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행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금부터 김장철 전까지 배추 공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농협 관계자에게 농식품부와 농협 등이 저렴한 가격대로 준비한 민생선물세트의 판매 상황을 물었다. 지난달 28일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산물 코너에서 굴비 가격을 살펴봤고, 계란 판매대에서는 명절에 계란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한번 더 송미령 장관에게 주문했다.

한우 코너에서는 한우 포장 팩에 적힌 가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축산물 물가를 점검했다. 근처에서 장을 보던 한 고객이 “대통령님 음식 잘하신다는데, 미역국에 쓸 고기 대신 좀 골라주세요”라고 부탁했고, 윤 대통령은 “기름기

가 약간 있는 고기가 미역국 끓이기에 좋다”면서 명절덕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나주 전통 배 1박스, 철원 오대쌀 한포대, 토종닭 팩, 송편, 인절미, 김 등을 구매하며 주변 고객 한명 한명에게 “명절 잘 쇠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했다. 또 시민들의 셀카와 악수 요청에는 수시로 발걸음을 멈추고 흔쾌히 촬영에 응했다.

한편 오늘 윤 대통령의 물가 점검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동근 농협유통 대표이사 등이 동행했으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최소 수행 인력으로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추석민생안정대책으로 비축·출하조절 등을 통해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1만2000톤,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하는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추석 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수품 가격·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심우정 “文 수사 보고 안 받아... 김건희 여사 친오빠와 친분 없어”

(검찰총장 후보자)

법사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 후보자, 文 검찰 수사 정당성 주장
尹 특활비·김 여사 명품백 대담 회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사진)는 3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겟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심 후보자는 법사위 소속 이성운 민주당 의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직접 보고 받지는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데자뷰로 느낀다”라고도 했다.

이어 심 후보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년이 넘도록 수사하고 부인 김혜경 여사는 10만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다. 반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지조작 사건은 몇 년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300만원 명품백 수사는 감사의 표시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며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 후보자는 “검찰은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여당 의원들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각각 “비리가 불거져 나오면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없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심 후보자는 김진우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대표는 심 후보자와 휘문고등학교 81회(1989년 졸업) 동창으로,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두 사람의 친분이 심 후보의 검찰총장 후보인사에 대한 영향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 후보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김 대표와의 친분 의혹 제기에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대표의 심 후보자 결혼식·자녀 돌잔치 참석과 승진 축하 난 전달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한편 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엔 대담을 회피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직무 정지 중에 11월26일 400만원, 11월30일 2821만원을 사용했다”며 “왜 직무 정지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특활비를 사용해도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몰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심 후보자에 “수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내일모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답변드릴 수 없다”고 일관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野, 비토권 포함된 ‘채상병 특검’ 재발의

與, ‘野 셀프 특검’ 평가절하

야5당이 특검 후보 추천 비토권(재추천권)이 포함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일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며 후보 추천에 대한 비토권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특검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후보 1명씩 추천안을 정부에 넘긴다. 후보 추천 권한에서 여당은 제외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

절치 않으면 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성준·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특검법 발의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인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을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은 “한 대표는 여당 대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그 입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안 재발의를



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야당 셀프 특검’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日 기시다 총리, 방한 ... 협력 성과 점검

대통령실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 논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 1박2일 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가 이달 말 퇴임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일·한미일 협력 성과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소식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 방한 시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 이 있을 것이며, 회담에서는 양자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올해 들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은 것은 두 번째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회담을 가지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2번째 한일정상회담이다.

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방한은 기시다 총리의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 이행 차원에서 성사됐다. 또 기시다 총리는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방한을 적극 희망했다고 한다. /서예진 기자